

부모의 이혼 유무와 부부갈등에 따른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연구

한영숙¹, 양명숙^{2*}

¹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겸임교수, ²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Undergraduates: Focusing on the Divorce Status and the Marital Conflict of their Parents

Young-Sook Han¹, Myong-Suk Yang^{2*}

¹Adjunc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ocial Culture, Administration & Welfare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Hannam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Child Development & Guidance, Han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이혼 여부와 부부갈등에 따른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은 정신건강, 커플관계탄력성, 부모자녀관계와 자아분화를 통하여 비교하였고, 부모의 이혼과 부부갈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혼을 하지 않은 부모들은 고갈등부모와 저갈등부모 자녀집단으로 나누어 이혼부모 자녀집단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7개 지역에 위치한 4년제 1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175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통계 방법은 빈도분석과 t-검증, 상관분석, ANOVA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을 살펴보면,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은 부모가 이혼한 집단의 대학생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고, 부모자녀관계와 자아분화는 이혼하지 않은 부모의 대학생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정신건강과 커플관계탄력성은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부모자녀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부부갈등이 높은 집단의 대학생들이 가장 심리적인 적응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이혼 자체보다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부모의 부부갈등, 이혼부모, 정신건강, 커플관계탄력성, 부모자녀관계, 자아분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university students according to their parents' divorce status and their parents' conflict. Specifically, students who have not-divorced parents were subdivided into two groups: those who have with a high degree of conflict and with a low degree of conflic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the marital conflict from the divorced parents is higher than the one of the marital conflict from the parents not divorced. Second, the group who has the parents with a high level of marital conflict went through the highest difficulties among 3 groups at all variables without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marital conflict is more closely related to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hildren than parental divorce itself.

Key Words : Marital conflict, Divorced parents, Mental health, Couple resilience, Parents-child relationship, self-differentiation

*This paper was supported by Hannam University(2019) and its parts were cited from the first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Corresponding Author: Myong-Suk Yang(msyang@hnu.kr)

Received November 29, 2019

Revised December 20, 2019

Accepted January 20, 2020

Published January 28, 2020

1. 서론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내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역할로 인해 고민과 회의를 갖게 되며 이러한 고민과 갈등은 이 시기의 발달과업으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1]. 그러나 성인으로서 독립된 사회적 존재로 도약을 앞둔 대학생들이 부모 이혼이나 심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을 경험한 것은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2], 이혼가정 자녀들의 경우, 우울, 불안, 공격성 등의 증상을 비롯하여 정신건강, 대인관계, 커플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기도 한다[3-5]. 즉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은 정신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통하여 심리·정신·행동적으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5-9]. 이처럼 부모의 이혼은 삶의 기반이던 가족이 와해됨으로써 가족구성원에게 위기를 가져오는 사건으로 이를 겪은 자녀들에게 다양한 심리적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이 반드시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 보다는, 이혼전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정신건강을 비롯한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다[10-12]. 즉 이혼가정 자녀들의 경우라도 부모의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13]. 따라서 부모의 이혼여부보다는 부모의 심각한 부부갈등이 자녀의 과잉행동,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문제를 초래한다[14-16]. 또한 부모의 부부갈등은 자녀의 또래관계, 이성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17], 부모의 부부갈등에 노출된 정도가 심각할수록 파트너와의 친밀감 형성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18]. 부모의 이혼 자체보다는 부모의 심각한 부부갈등이 부모자녀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19-21]. 이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훈육이 비일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자녀를 지지하거나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빈약한 부모자녀관계로 이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부모의 부부갈등은 자녀의 자아분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22], 자신의 가족이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개인의 자아분화도 높다고 한다[23-25]. 이는 갈등관계에 놓여있는 부부의 경우 자녀를 삼각관계에 끌어들이면서 자녀의 자아분화가 방해받게 되어, 결국 자아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26]. 그러나 대부분 연구들이 부모의 이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

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부갈등에 따른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학생 자녀들의 심리적 적응은 위의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정신건강과 커플관계 탄력성, 부모자녀관계 및 자아분화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부부갈등은 자녀인 대학생들이 지각한 과거나 현재의 경험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을 부모의 이혼여부와 부모의 부부갈등의 정도에 따라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인 자녀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부갈등과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커플관계탄력성, 부모자녀관계, 자아분화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부모의 부부갈등은 이혼부모와 이혼을 하지 않은 결혼유지부모의 경우는 부부의 갈등이 심각한 상위 25%의 고갈등부모와 갈등이 낮은 하위 25%의 저갈등부모 자녀 집단으로 나누어 이 세집단간 심리적 적응문제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이혼과 부모의 부부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가설은 첫째,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라 부모의 부부갈등, 대학생자녀의 정신건강, 커플관계탄력성, 부모자녀관계, 자아분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생 자녀들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정도에 따라 자녀의 정신건강 커플관계 탄력성, 부모자녀관계, 자아분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경북, 전라도, 충청도지역에 소재한 14개 대학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500부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자 및 별거가정과 사별가정을 제외한 175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부부갈등 척도

Grych, Seid와 Fincham이 개발하고, 이정덕과 권영옥이 번안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를 사용하였다[27,28]. 하위요인은 빈도, 강도, 해결정도, 내용, 위협, 대체효율성, 자기비난, 삼각관계 8개

영역으로, 총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정덕과 권영옥(1997)이 보고한 신뢰도(Cronbach' α)는 .81이었고, 본 연구는 .84로 나타났다.

2.2.2 정신건강 척도

Kopta와 Lowry가 개발하고, 박명실이 번안한 정신건강질문지(Behavioral Health Questionnaire-14: BHQ-14)를 사용하였다[29,30]. BHQ-14의 전체 점수는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지수이다. 정신건강상태의 전체 점수는 3개 영역 점수인 주관적 웰빙(1~2), 심리적 증상(3~10), 생활기능(11~14) 문항점수의 합산점수이다. 이외에 BHQ-14에서는 일부 문항들의 조합을 통해 우울과 불안을 측정하였다. 총 14개의 문항은 각각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우울이나 불안점수에서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낮다고 해석한다. 반면, 우울과 불안수준이 낮을수록 우울과 불안수준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박명실이 보고한 신뢰도(Cronbach' α)는 .84이었고, 본 연구는 .81로 나타났다.

2.2.3 커플관계 탄력성 척도

전지경과 양명숙이 개발한 미혼 커플관계 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31]. 하위요인은 커플관 긍정성, 커플관계 유연성, 커플관계 탈중심성,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5개 영역으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커플관계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지경과 양명숙이 보고한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1이었고, 본 연구는 .81로 나타났다.

2.2.4 부모자녀관계 척도

최인재가 개발한 부모자녀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32]. 하위요인은 존경, 친밀, 헌신, 엄격 4가지 영역으로 총 20개 문항이다. 각각의 문항은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에서 유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인재가 보고한 신뢰도(Cronbach' α)는 .95이었고, 본 연구는 .79로 나타났다.

2.2.5 자아분화 척도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근거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석봉이 개발한 자아분화 척도(Self-Differentiation Scale)를 사용하였다[33,34]. 하위요인은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5개 영역으로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제석봉이 보고한 신뢰도(Cronbach' α)는 .90이었고, 본 연구는 .74로 나타났다.

2.3 연구절차

남·녀 대학생 대상 2,500명의 설문지 중 2,223부가 회수되었으나, 이들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설문지는 1,854부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문제 1의이혼 여부에 따른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별거(48명) 및 사별가정(53명)을 제외하여 결혼유지 부모가정(1,613명)과 이혼부모가정(140명)의 총 1,753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2의 대학생인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의 정도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를 좀 더 명료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혼부모(140명)와 결혼유지부모의 경우에는 부부의 갈등이 심각한 상위 25% (403명)의 고갈등부모와 갈등이 낮은 하위 25%(403)의 저갈등부모 자녀집단으로 나누어 총 946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2를 활용하여 주요 변인간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부모의 부부갈등과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커플관계탄력성, 부모자녀관계, 자아분화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부부갈등의 정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혼부모와 결혼유지부모(저갈등, 고갈등) 자녀의 정신건강, 커플관계탄력성, 부모자녀관계, 자아분화는 one-way ANOVA를 실시한 후, 사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상관분석

Table 1에서 나타났듯이 전체 조사대상자 중 남학생이 965명(57.7%), 여학생은 788명(42.3%)으로 남학생의 비율이 더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20세 미만이 676명(37.4%), 20~25세가 1,058명(61.4%), 25세 이상이 19명

(1.2%)으로 나타났다. 가족 전체의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인 201명(18%),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가 1,042(61%), 500만원 이상 510명(21%)이라고 응답하였다. 부모의 결혼형태는 초혼 1,613명(92.0%), 이혼 140명(8.0%)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45.1%)와 어머니(58.3%) 모두 고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Table 2에서 보듯이 상관관계 분석결과, 정신건강은 성별, 학년, 형제유무, 부모의 월수입, 모의 학력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커플관계탄력성은 학년, 나이, 부모의 결혼형태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성별, 형제유무, 부모의 월수입, 부의 교육이, 자아분화에서는 학년, 형제유무, 부모의 월수입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상관관계는 높지 않았고, 대체로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ategories		Frequency	%
Gender	Male	965	57.7
	Female	788	42.3
Age	Under 20	676	37.4
	20 - 25	1,058	61.4
	Over 25	19	1.2
Grade	1 Grade	801	46.4
	2 Grade	516	29.8
	3 Grade	312	16.9
	4 Grade	124	6.9
Siblings	Yes	1,606	91.6
	No	148	8.4
Monthly income	Under 2 million won	201	18.0
	2 million won - 5 million won	1,042	61.0
	Over 5 million won	510	21.0
Parents' marital status	One's first marriage	1,613	92.0
	Divorced	140	8.0
Father's educational background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76	4.3
	Middle school graduation	111	7.7
	High school graduation	761	45.1
	University graduation	708	38.3
	Graduate degree	97	4.6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69	2.8
	Middle school graduation	89	5.4
	High school graduation	976	58.3
	University graduation	516	28.3
	Graduate degree	103	5.2

Table 2. The correlation of the measured variables

Categories	Mental health	Couple resilience	Parents-child relationship	Self-differentiation
Gender	-.119**	.082**	-.061*	-.160
Age	.031	.046*	-.018	.028
Grade	.060*	.018	.040	.086**
siblings	-.064**	-.036	-.085**	-.094**
Monthly income	.100**	.013	.125**	.211**
Parents' marital status	.028	.085**	-.036	-.024
Father's educational background	-.005	-.002	.057*	.044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080**	-.041	-.001	-.011

* $p < .05$ ** $p < .01$

3.2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부모의 부부갈등과 대 학생의 심리적 적응의 차이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부모의 부부갈등과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커플관계탄력성, 부모자녀관계, 자아분화의 차이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부부갈등($t = -7.18, p < .001$)과 부모자녀관계($t = 4.50, p < .001$), 자아분화($t = 3.35, p < .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혼부모자녀들은 결혼유지 부모자녀들 보다 부모들의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한 반면에, 부모자녀관계와 자아분화는 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건강과 커플관계탄력성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s of marital conflict perception, mental health, couple resilience, parents-child relationship and self-differentiation of marriage-maintaining and divorced parents' children

Measured variables	with the divorced parents (n=140)		with the parents not divorced (n=1,613)		t
	M	SD	M	SD	
marital Conflicts	82.06	15.32	72.74	13.92	7.18***
Mental health	77.44	13.40	77.53	9.23	-.06
Couple resilience	69.85	10.01	68.77	13.51	91
Parents-child relationship	137.34	29.57	147.23	24.52	- 4.50***
Self-differentiation	118.11	13.66	122.47	16.50	- 3.35***

*** $p < .001$

Table 4. Mental health, couple resilience, parents-child relationship and self-differentiation of low-level conflict, high-level conflict and divorced parents' children

Measured variables	Divorced parents' marital conflict(a) (n=140)		Parents not divorced				F	Scheffé
			High-level marital conflict(b) (n=403)		Low-level marital conflict(c) (n=403)			
	M	SD	M	SD	M	SD		
Mental health	77.44	13.40	72.10	15.66	82.71	13.30	39.13***	c)a>b
Couple resilience	69.85	10.01	68.25	14.49	72.49	11.98	15.30***	c)a>b
Parent-child relationship	137.34	29.57	134.29	24.55	161.40	20.09	99.88***	c)a, b
Self-differentiation	122.12	13.66	110.02	13.99	133.30	14.76	182.91***	c)a>b

*** α .001

3.3 이혼부모와 결혼유지부모(고갈등, 저갈등)의 부부갈등과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의 차이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정도에 따른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혼부모와 결혼유지 부모의 경우에는 부부갈등의 고저에 따라 상위 25%의 고갈등부모 자녀집단과 하위 25%의 저고갈등부모 자녀집단으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4에서와 같이 세 집단에서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커플관계탄력성, 부모자녀관계, 자아분화 등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은 저갈등부모 자녀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부모, 고갈등부모 자녀 순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플관계탄력성은 저갈등부모 자녀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이혼부모 자녀집단과 고갈등부모 자녀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는 저갈등부모자녀가 이혼부모와 고갈등부모 자녀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혼부모 자녀집단과 고갈등부모 자녀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아분화에서는 저갈등부모, 이혼부모, 고갈등부모 자녀집단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대학생 자녀들의 심리적 적응의 차이를 알아보았고, 부모의 이혼 여부와 더불어 부모의 부부갈등의 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하기 위하여,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경우에는 고갈등부모와 저갈등부모로 나누어 대학생 자녀들의 심리적 적응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이혼 여부에 따른 대학생인 자녀들의 심리적 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커플관계탄력성, 부모자녀관계, 자아분화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부모의 부부갈등에서는 이혼부모의 자녀가 결혼유지부모 자녀에 비해 부모의 부부갈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5-9]들과 일치하는 바이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 그 자체가 자녀의 부적응을 초래 한다기보다는 부모의 이혼의 원인이 되는 부부갈등과 이혼과정에서 더 유발되는 부부갈등이 원인이라는 연구들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10-12]. 부모자녀관계에서는 결혼유지부모 자녀들이 이혼부모 자녀에 비해 더 높은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유지부모 자녀가 이혼부모 자녀보다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6,12,35,36]와 같이한다. 자아분화도 결혼유지부모 자녀가 이혼부모 자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의 건강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자녀일수록 자아분화수준이 높다는 연구[23]와 자아분화는 원가족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힌 일부의 연구결과들[8,23,26,37]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정신건강과 커플관계탄력성에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정신건강의 경우, 부모의 이혼 자체만으로 자녀의 우울, 불안, 생활의 질 등 정신건강에 차이가 없다고 밝힌 연구결과들[19,38]과 일치한다. 1983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2,4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종단연구를 실시한 Ruschena et al.은 이혼부모 자녀와 결혼유지부모 자녀들의 정서적 적응과 전반적 행동문제에 차이가 없었으며, 책임감, 협동심, 자아통제, 공감능력 등 사회적 유능성 측면과 학업적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밝혔다[39].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이혼자체가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대부분의 연구결과들[2,4,5,8,40-42]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커플탄력성도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혼부모 자녀가 결혼유지부모 자녀보다 대인관계, 이성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결과[8,41,43]가 있지만, 커플관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라 단정하기가 어렵다. 특히 이혼부모 자녀와 결혼유지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커플관계를 다룬 연구는 부재한 실정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부모의 이혼 그 자체만으로 이혼부모 자녀들이 부정적일 것이라고 단정하여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혼부모 자녀와 결혼유지부모 자녀(고갈등부모, 저갈등부모)집단에서의 정신건강, 커플관계탄력성,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자아분화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자녀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고갈등부모 자녀가 유의한 수준에서 심리적 적응의 어려움을 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심한 가정의 자녀들이 이혼부모 자녀들 보다 심리적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건강에서는 저갈등부모, 이혼부모, 고갈등부모 자녀집단 순으로 정신건강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혼부모자녀보다 부모의 부부갈등이 심각한 자녀가 정신건강에 더 많은 문제를 보인다는 연구결과[44]와 일치하며, 이혼부모이든 결혼유지부모이든 결혼형태와 관계없이 부부간의 갈등이 심할수록 자녀는 우울, 불안, 공격성 등과 같은 더 많은 정신건강 문제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10,12]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가 이혼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 자녀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보다는, 현재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일지라도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부부갈등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커플관계탄력성에서는 저갈등부모 자녀집단과 고갈등부모 자녀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의 노출은 도리어 부모의 이혼보다는 자녀들에게 개인의 성장발달과 대인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이성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연구[45]와 부부갈등이 심각한 가정의 자녀일수록 커플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연구와도 일치한다[46]. 부모는 자녀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깝게 관찰할 수 있는 커플관계의 모델로서, 부모의 부부갈등은 자녀가 결혼을 한 이후 그들의 부부관계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47], 커플관계에 대한 교육 및 상담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부모자녀관계는 저갈등부모 자녀집단이 부모와의 관계를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혼부모 자녀집단과 고갈등부모 자녀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고갈등부모를 둔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혼부모 자녀보다 부모의 부부갈등이 심각할수록 부모자녀간의 갈등도 높으며, 친밀감이나 애정적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들[10,19]과도 일치한다. 이는 부모의 이혼뿐만 아니라 부모의 심각한 부부갈등이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자아분화는 저갈등부모, 이혼부모, 고갈등부모 자녀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부부갈등과 자녀의 자아분화수준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부모의 부부갈등이 심각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가 부모의 부부갈등을 낮게 지각한 자녀에 비해 자아분화가 낮다는 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한다[26,44,48-50]. Bowen(1978)의 주장에서 보듯이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자녀와 삼각관계를 형성 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자녀의 분화수준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26].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 그 자체만으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이러한 심리적 고통이 그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그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이혼 전과 후에 발생하는 부부갈등의 정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부모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부부갈등이 높은 상태에 놓여있는 대학생에게도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상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부모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각 발달단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연구결과[51,52]들을 볼 때, 자녀의 발달단계와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상을 비교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라서 상담자의 개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모의 부부갈등은 대학생인 자녀들이 지각한 경험으로 측정된 것으로 과거의 기억이나 현재에 경험하는 것들이 혼재되어 있기에, 부모의 실제 부부갈등을 측정하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기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고 하겠다.

REFERENCES

- [1] H. S. Jang. (2015).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Seoul : Pakyoungsa.
- [2] O. S. Song, C. H. Kim & H. C. Kwon. (2008). A Qualitative Analysis on the Experiences of Parent/Divorced College Students : With a Focus on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1)*, 15-33. DOI : 10.15842/kjcp.2008.27.1.002
- [3] S. H. Ju. (2007). Parental Divorce and Their Children's Adjustment : Focusing on Parent-children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as a mediator.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 107-136. DOI : 10.16975/kjfs.2007..20.004
- [4] J. I. Choi & S. C. Kim. (2015). An Art Therapy Case Study to Investigate the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an Adolescent from a Divorced Family and the Improvement in Parent-child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22(2)*, 503-528. DOI : 10.35594/kata.2015.22.2.011
- [5] C. I. Choi. (2014). *A study on the academic conflict of single parent's highschool boy through parent's divorce*. Ph. D.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Cheonan.
- [6] Y. O. Chung, M. K. Lee & E. J. Kim.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ear of abandonment and Loss about parental divorce stress and divorced adolescents` anxiety and depression.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2(1)*, 171-188.
- [7] P. R. Amato, (2010). Research on Divorce : Continuing Trends a Trends and New Developm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 650-666. DOI : 10.1111/j.1741-3737.2010.00723.
- [8] Y. Chung & R. Emery, (2010). Early adolescents and divorce in South kore : Risk, resilience and pain.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1(5)*, 855-870. DOI : 10.3138/jcfs.41.5.855
- [9] D. H. Demo & M. A. Fine. (2010). *Beyond the averagedivorce*. Thousand Oaks, CA : Sage. DOI : 10.4135/9781452274713
- [10] P. R. Amato, (2001). Children of divorce in the 1990s: an update of the Amato and Keith (1991) Meta-Analy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3)*, 355-370. DOI : 10.1037//0893-3200.15.3.355
- [11] P. R. Amato & T. D. Afifi, (2006). Feeling Caught Between Parents : Adult Children's Relations With Par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1)*, 222-235. DOI : 10.1111/j.1741-3737.2006.00243.x
- [12] J. B. Kelly, (2000). Children's Adjustment in Conflicted Marriage and Divorce : A Decade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Psychiatry, 39(8)*, 963-973. DOI : 10.1097/00004583-200008000-00007
- [13] E. M. Hetherington & J. Kelly, (2002). *For better or for worse: Divorce reconsidered*. Norton : W.W. & Company.
- [14] S. H. Hong & Y. Y. Kim. (2005). Difference in Adolescent Children`s Psycho-Social Adjustment by Marital Conflict and Divorce of Par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2)*, 163-173.
- [15] S. H. Hong & G. H. Chung. (2014). The Impact of Adolescents` Perceived Parental Conflict on School Adjustment and Self-Identity :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Father / Mother-Adolescent Closeness Gap.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6(4)*, 269-290.
- [16] S. Y. Lee & H. H. Chung. (2010). Interparental conflicts and adolescents' mal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6)*, 147-170.
- [17] J. H. Lim & J. J. Youn. (2010). A Review of Interparental Conflict in Relation to Child Developmental Outcomes in Korean Journal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7(1)*, 263-284.
- [18] Y. K. Chung & J. Y. Kim. (2004). The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on Risk in Intimacy and Sexual Behaviors with the Opposite Sex of Early Adul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12*, 71-104.
- [19] H. J. Yoo. (2001). The Influence of Parental Divorce and Interparental Conflict on Adaptation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13(2)*, 55-78.
- [20] E. M. Cummings & P. T. Davis,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DOI : 10.1037//0033-2909.116.3.387
- [21] A. Krishnakumar & C. Buehler, (2000).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s : A Meta Analytic Review. *Family Relations, 49(1)*, 25-44. DOI : 10.1111/j.1741-3729.2000.00025.x
- [22] J. H. Park. (2012). *The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on adjustment to school life : Mediating effects of self differentiation and social support*. M. A. dissertation. Kyungshung University, Busan.
- [23] J. M. Lee. (2010).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Family Strength, Self-Differenti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3)*, 1271-1287. DOI : 10.15703/kjc.11.3.201009.1271
- [24] J. R. Kwon & I. S. Lee. (2005). A Study on the Marital Adjustment according to Self-Differentiation and Emotional Stability of the Family of-Origin. *Journal Family Relations, 11(1)*, 35-56.
- [25] P. Johnson, W. C. Thorngren & A. J. Smith, (2001). Parental Divorce and Family Functioning : Effects on Differential Levels of Young adults. *The Family Journal, 9(3)*, 265-272. DOI : 10.1177/1066480701093005
- [26] M. Bowen, (1978). *Family theory in clinical practice*.

- New York : Jason Aronson.
- [27] J. H. Grych, M. Seid & F. D. Fincham,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3), 558-572.
DOI : 10.2307/1131346
- [28] Y. O. Kwon & C. D. Lee. (1997). A Validation Study on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8(1), 65-80.
- [29] S. M. Kopta & J. L. Lowry. (1997).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Behavioral Health Questionnaire-20: A Brief Instrument for Assessing Global Mentalhealth and the Three Phases of Psychotherapy Outcome. *Psychotherapy Research*, 2(4), 413-426.
DOI : 10.1093/ptr/12.4.413
- [30] M. S. Park. (2005).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of suicidal risk group, and application of group counseling for college students*. Ph. D.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31] J. K. Jeon & M. S. Yang. (2013). The Study on the Constituents of Pre-Marital Couple Relationship Resili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1), 163-190.
- [32] I. J. Choi. (2006). Cultural Psychological Implication of the Korea Parent-Child Relationship.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3), 761-773.
- [33] M. Bowen. (1976). *Family therapy in clinical*. New York : Jason Aronson.
- [34] S. B. Je.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dysfunctional behavior*. Ph. D. dissertation. Busan University, Busan.
- [35] H. S. Kim. (2013). *Growth of Korean Divorced Children: Risks and Resources*. Seoul : Jipmoondang.
- [36] J. A. Han. (2011).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 Related to Parent's Divorce Status and Maternal Parenting Styles in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Life-span Studies*, 1(1), 1-18.
- [37] J. H. Oh. (2016).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7(2), 509-532.
DOI : 10.22143/HSS21.7.2.24
- [38] L. S. Grant, T. A. Smith, J. J. Sinclair & C. J. Saltset. (1993). The Impact of Parental divorce on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19(1), 183-193.
DOI : 10.1300/j087v19n01_10
- [39] Ruschena, E., Prior, M., Sanson, A. & Smart, D. (2005).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Adjustment Following Family Transi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4), 353-363.
DOI : 10.1111/j.1469-7610.2004.00369.x
- [40] Y. H. Kim & J. N. Kim. (2013). Effects of Solution-Focused Groups on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of Children with Divorced Parents : Resilience, Divorce Recognition, Depression and Anxiety. *Family and Family Therapy*, 21(1), 103-126.
DOI : 10.21479/kaft.2013.21.1.103
- [41] Y. S. Kim. (2013). The Impact of a Broken Family upon its Child's Personal Growth. *Journal of Women's Studies*, 28, 1-20.
- [42] P. Rich. (2007). *Divorce Counseling Homework Planner*. Seoul : Hakjisa.
- [43] J. M. Kim & J. H. Jang.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arent Attachment and Romantic Attachment from Normal and Divorced Family.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5(4), 151-172.
- [44] P. R. Amato & A. Booth, (1991). *A generation at risk*.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DOI : 10.2307/j.ctvjsf3nc
- [45] H. L. Lim. (2014). *The effect of perceived marital conflicts on fear of intimacy in the romantic relationships : The mediating effect of early maladaptive schema*. M. A.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 [46] E. M. Kinard, & J. Reinherz. (1984). Behavioral and Emotional Functioning in Children of Adolescent Mothe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4, 578-594.
DOI : 10.1111/j.1939-0025.1984.tb01528.x
- [47] K. J. Kim & Y. H. Kim. (2015). The Mediating Effect of Differentiation of Self in Relation between Perceived Marital Conflict of Parents on Their Marit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Men and Wome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3), 93-112.
- [48] H. R. Park. (2009). *The effect of perceived couple conflicts and self differentiation on school life maladjustment of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M. A. dissertation. Busan University, Busan.
- [49] Y. S. Seoh. (1999).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s according to the level of couple's self-differentiation*. M. A.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50] E. J. Lee. (2008). *The influence of self differentiation and perceived couple conflicts on peer relationships of high school students*. M. A.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 [51] S. Y. Jeon & A. J. Yoo. (1997). Adolescents' of Perceptions Divorce and Remarriage.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22, 55-64.
- [52] E. M. Hetherington, M. Cox & R. Cox, (1985). Long-term Effects of Divorce and Remarriage on the Adjustment of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24(5), 518-530.
DOI : 10.4324/97802034

한 영 숙(Young-Sook Han)

[정회원]



- 2017년 2월 :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문학박사)
- 2018년 9월 ~ 현재 : 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부모 및 부부상담, 가족상담, 정신건강
- E-Mail : ys0860@hanmail.net

양 명 숙(Myong-Suk Yang)

[정회원]



- 1990년 12월 : 독일 뒤셀도르프하인리히 하이네 대학교 심리학과(철학박사)
- 1992년 3월 ~ 현재 :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1998년 이후) 교수
- 2008년 3월 ~ 현재 : 일반대학원 상담학과,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발달 및 가족, 집단상담, 개인 및 집단 슈퍼비전
- E-Mail : msyang@hnu.kr